

춘천성시화운동본부 6월 조찬이사회를 마치고(150605)
(앞줄 왼쪽부터) 김수복목사 박인관목사 지용찬목사 오의석목사 김창환목사
(뒷줄 왼쪽부터) 황병호장로 최영조목사 정선문목사 이병철목사 조영준목사 석광[illegible]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vol.
200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겠습니다.



2015. 6. 3 PM 2:00, 성시매거진 편집회의

Editor's Letter

때 이르게 찾아온 더위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리스사태는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보건은 물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행사나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말았다. 이제 좀 끝나기를 소망하는 바램처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1998년 9월 15일 창간되어 금번 7월호가 2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호를 200호 특집으로 준비하면서 춘천성시매거진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춘천성시매거진은 이름과 모양을 바꿔가며 새롭게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처음 갖었던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편집체제를 바꾸느라 2-3호 휴간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째 꾸준히 매달 성시소식을 전하고 있다. 자화자찬일지라도 정말 성시화운동본부와 편집위원들이 수고와 애씀에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성시신문이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시신문이 태동되도록 산파역할을 했던 조남진 장로님을 통해 듣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시신문과 성시화에 마지막까지 몸바쳐 일하셨던 고 조충환 목사님, 고 이학규 장로님의 업적들을 회상해 보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춘천성시화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모든 도시의 성시화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구하는 분들에게 이렇다 할 자료나 장소를 소개할만한 게 없다는 사실이다. 개발이란 명목아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춘천성시화운동과 관계된 자료나 역사적 흔적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리라 본다.

이제 200호를 발간하기까지 함께 해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성시매거진이 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최영조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Contents

2015.7
vol.200









006 **캘린더**

008 편집위원 글

010 축하의 글

018 **Interview1** 조남진 장로

021 **Interview2** 조은제 목사, 기정회사모

024 춘천성시신문 창간호에서 만난 기사 1

026 춘천성시신문 창간호에서 만난 기사 2

028 **예수안에서 본 예술** 김춘배 화백

029 **음악산책** 쇼팽

030 **성시1** 블레싱 춘천 다시보기 1

032 **성시2** 블레싱 춘천 다시보기 2

034 **성시3** 블레싱 춘천 다시보기 3

036 성시투어

038 **건강이야기** 메르스

041 **칼럼** 춘천예찬

042 **예향**

043 **만평**

044 **영화이야기** 킬링지저스

046 **예수의 미소** 증로 빈대떡

048 **알려드려요**

050 **6월 이야기**

056 **후원자 명단**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7
July
2015

◆ 이달의 기도제목

· 춘천성시 매거진이 200호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호가 되기까지 애쓰고 힘쓴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춘천성시매거진이 되게 하시고, 춘천성시를 보는 이마다 동역의 마음을 주소서. 춘천성시가 춘천의 교회들의 연합을 주도하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지혜와 재정을 풍성히 채우사 주의 일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 춘천의 모든 교회와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비세대를 존중하며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와 소문이 넘치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CC 동아
5 맥추감사주일	6 [어린이전도협회] ~10일 3일클럽전도자훈련 강릉강동교회	7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JDM] ~18일 춘천지구 해외선교훈련 캄보디아 프놈펜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12	13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3차 저녁 7시, 주향교회 강사 : 서훈교수 [IVF] ~18일 전국리더대회 천안고신대학원	14 [CCC] 6. 29일 ~ 광주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일본후쿠오카 단기선교
19 [기드온순방예배] 오전 7시, 거성교회	20 [GBT] 비전기도회 저녁7시, 예담교회 [IVF] ~ 8. 1일 중국통일기행	21
26	27 [쥬빌리 청소년집회] ~30일 수안보리조트 [어린이전도협회] ~ 29일 여름성경학교캠프 토코미자연학교 [JDM] ~30일 청소년수련회 JDM 훈련센터	28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 하천무대 [CCC] 6. 19일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해상 40일 금식기도 및 1만명 헌혈운동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CCC] ~17일 동아시아 H지역단기선교	**2** [GBT] 선교를 돕는 재능기부 오전 10시, 예담교회,	**3** [성시본부] 조찬이사회 [기드온 춘천캠프 매주 오전 7시, 미가	**4** [JDM] 6.29일 ~ 전국대학 여름집회 경일대학교
8	**9** [홀리클럽] 임원회의 오전 7시, 기밥집 [가독교마술인협회] ~15일 제 19회 정기전 문예회관 저녁 5시 오픈	**10**	**11** [성시본부] 성시매거진 200호 감사예배 오전 11시, 온누리교회
15	**16**	**17** 제헌절	**18**
22	**23**	**24**	**25**
29 [IVF] ~ 8. 1일 전국 학사수련회 (일심축제) 원주 연세대	**30**	**31**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200호를 맞이한 편집위원의 감사

김춘배 편집위원

초대 편집위원장 故조충환 목사님 모시며 만평과 함께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회라니요? 그간의 시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뒤늦게 들었는데 그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실에 부부동반 내방하시며 귀한 그릇 선물까지 해주신 故이학규 장로님의 소천소식도..

그 뒤 한동안 쉬었다가 정재호 목사님이 화실로 오셔서 권면하며 다시 시작하게 되어 2대 박상호 목사님에 이어 지금의 최영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매달 모임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만평작업을 자원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귀한 소식과 맛깔 나는 자료들로 섬겨 온 이관형 권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 번만 더 취재하면 100회를 달성하는 영화칼럼을 통해 늘 준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절실히 느끼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세현 편집위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되이 섬기신 선배님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을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섬기며 존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낙환 편집위원

200호를 출간하기 까지 수많은 정성과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더욱 노력하고 춘천 시민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식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관형 편집위원

'예수의 작품', '예수의 味美' 그리고 '만평'을 맡아 왔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시매거진을 통해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심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제 자신이 영성과 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벌써 6년 넘게 편집위원을 맡아 글을 쓰고 있으니 가끔씩은 머리만 굴려서 함부로 말한 적도 있지 않았나 하는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성시매거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

이영규 편집위원

'1998년 9월 15일 자 창간호가 나온 성시신문은 2004년에 3개월 정도(2004년 4-6월) 휴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이었던 박상호 목사님(춘천제일장로교회)은 다시 시작하고자 편집위원으로 몇몇을 불렀는데 그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에 부름을 받아 7월 1일 자 신문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만 11년이 되었네요. 춘천제일교회 당회장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 만든 신문은 대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가독성과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잡지형으로 바뀌었지만 신문을 만드는 편집위원들의 수고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요한복음18:36-38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왕국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한 모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행위 잊지 않고 계속 가게 되기를!

이병철 편집위원

'1972년 춘천성시화가 시작되고 10년이 훌쩍 더 넘어서 1998년 9월에 성시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창간도 중요하지만 지속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달려와서 200호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성시신문이 몇 차례 변모하다가 좀 더 친근하고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나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2014년에는 성시 매거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변모가 어떤 분들에게는 색다른 느낌이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신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성시매거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춘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춘천을 사랑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춘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최상도 편집위원

지난 10여 년간 교회탐방과 신앙의 인물탐방을 중심으로 성시매거진을 섬겼습니다. 교회탐방만 100여 곳을 넘게 취재하였으니 나름 감회도 새롭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화천의 어느 감리교회인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섬기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하시고, 사모님은 유수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와 마을을 섬기셨습니다. 도저히 농촌마을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잘생긴 목사님과 미모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공부방을 개설하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식사를 제공하며, 악기를 가르치고, 손수 등하교 운전을 지원하셨습니다. 마침 정재호 목사님(당시 사무총장)과 김미경 간사님(당시 성시실장)이 동행하셨는데 우리들에게까지 저녁을 주시고, 옆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피아노 연습, 플루트 연습, 바이올린 연습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선한 목자 같은 목회자들이 있기에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성시매거진을 통해 더 아름다운 미담이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를 축하하며...



김인중 목사
(안산동산교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저는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춘천 체육관에서 있었던 춘천성시화대회에 참석하여 25살 나이에 성시화의 비전,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은 한 도시 한 도시의 성시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과 확신을 가슴 뜨겁게 받았습니다. 사영리복음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나간 지역이 소양로 미군부대 지역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소양로 기지촌 골목마다, 집집마다 두드리며 전도를 다녔습니다. 25살 복학한 대학생인 제가 6월6일 선배 따라 CCC에 구경갔다가 사영리복음으로 예수님 만난 지 2달 만에 춘천성시화 대회에 참석케 하신 성령 하나님은 소양로 기지촌 전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다가 사영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웃옷을 벗고 화투치던 누님들이 "사영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했더니 웃옷을 걸쳐 입으며 사영리가 뭐야? 누님들! 하나님은 누님들을 사랑하시며 누님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요3:16,요10:10) 하며 사영리 10개의 요절을 담대히 전해주자, 한 누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누님 힘내세요~ 하니 '저는 여기서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날 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꿈과 춘천성시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춘천 성시매거진 200호 발간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수고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님과 관계자 동지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소양강을 이루는 것처럼 성시뉴스200호 언젠가 300호가 나오는 날 춘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군사, 체육, 교육등 모든 분야에 복음으로 무장된 성시요원들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성시 춘천!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 전하여 인간개혁 ,법제개혁 ,환경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도시, 성시 춘천을 만드는 불씨 춘천 성시 201호 300호를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김창환 목사
온누리장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십칠 년 전 성시신문을 시작한 분들과 어려운 여건에도 편집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200호 출간을 축하합니다. 성시매거진으로 새로워져서 담아놓은 글들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정화목 이웃사랑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복하세요.



이수영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매거진 춘천성시가 1998년 9월 창간을 시작으로 200호까지 발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0호 발행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매거진 춘천성시 발행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거진 춘천성시는 우리가 춘천 성시화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춘천 성시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매거진 춘천성시가 춘천성시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인관 목사
광염감리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성시매거진 200호를 축하합니다. 200호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동안 최영조목사님을 비롯한 성시신문 편집위원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매달마다 광고도 부족하고 원고 구하기도 힘들텐데 참고 그래도 소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줬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시매거진이 춘천에 소식을 알리고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할 기대합니다.



지용찬 목사
은혜장로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시매거진은 춘천 교회와 성도님들의 자존심입니다 성시화본부와 성시신문, 매거진의 시작이 춘천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역대 이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현 편집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춘천 성시 매거진의 역할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윤태호 목사
JDM대표

춘천 성시 매거진 출간 200호를 축하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무명의 글잡이들이 실었던 보석같은 작은 글들이 생명을 만들고, 비전을 세우고, 성시화의 꿈을 현실에서 조각하며 멋진 칼라의 표지만큼 성장한 것을 축하합니다.

1980년대 초엽 춘천에 있는 선교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YMCA 작은방에서 주일마다 춘천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춘천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섭게 실현되게 해달라고, 교회들과 단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부흥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몇 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성시매거진에서 읽으며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춘천 성시매거진이 성공하지 않은 작은 교회들의 개척과 전투적인 목회비전과 현장을 지역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름없는 이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웅으로 소개시켜 주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주며 수많은 이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천하는 매개체가 되어준 세월이 아름답습니다. 혹시나 성시매거진이 천국의 생명책 밑에 있는 참고도서처럼 21세기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호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축복의 기록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 예수제자운동(JDM)이 1972년 성시화 운동의 햇불과 함께 시작된 춘천에서 1977년 시작된 대학생 선교단체이며 해외 선교사 파송단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시화 운동의 비전과 역량을 통해 성장한 성시화의 영적자산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더 성시 매거진의 무궁한 발전과 확장과 영향력에 축하를 보냅니다.



성기문장로
춘천지방법원장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에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하여 시작되어 금년으로 4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제 각 도시의 성시화운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춘천성시 매거진은 이러한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매체로서 1998년 7월 창간된 이래 지금까지 춘천성시화운동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외치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거룩한 도시에 대한 갈망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온 춘천성시 매거진이 이제까지 한 역할은 앞으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온 도시가 성시화되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믿으며 진심으로 200호 발간을 축하를 드립니다.



춘천 응원지기, 김용덕 목사
서울 새생활교회 김용덕 목사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를 축하하며...

향기론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춘천 들녘을 달려 온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를 축하드립니다!!! 이 향기가 참 놀랍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까지 달려 올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1972년부터 춘천을 거룩한 도시 · 킹덤 시티 춘천-로 만들고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이었고, 그 거룩한 향기는 춘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곳곳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열방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리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춘천에서 드린 기도와 예배의 향기가 세상으로 더 넓게, 더 멀리 퍼져 나갈 때에 춘천은 거룩한 과즙을 담뿍 품은 열매를 맺어서, 그 향기를 맡고 오는 이들에게 "이 열매들이 거룩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라며 춘천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에덴의 잔치를 열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길 기도합니다!



안동규 교수
한림대학교

성시신문 1호에 제가 기고문을 썼을 때는 200호를 상상해 볼 수도 없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창대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시매거진을 통해서 앞으로 1000호를 넘어 2000호까지 보기를 기도합니다.
(성시신문 창간호 "춘천성시화의 길 (Dream ▶ Vision ▶ Mission)" 기고)



김종익목사
광명교회,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회장

샬롬! 춘천성시 매거진 발간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초등학교 때 참 많이 부르고 들었던 새마을 노래 가사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퇴비도 베어 학교에 제출했고, 호미 들고 신작로라고 하는 길에 코스모스도 심으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새마을 운동을 펼치며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운동을 세계 여러 곳에 나누어 줄 정도로 나라 발전에 파격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도시 춘천에서는 거룩하게 살아보세~ 거룩하게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거룩하게 살아보세~ 하며 신앙의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춘천성시화 운동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잘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꼴 안 나겠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성도들의 눈에 뭔가 보여 지는 작품도 만들자하여 춘천성시신문이 발간되었고 벌써 200호 성시매거진이 이 달에 발간되었네요. 우리 춘천은 이 성시화 운동을 펼치며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놓고 보면 타 종교의 신도 숫자가 많으나 춘천만 놓고 볼 때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다는 통계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긍심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성시화 운동을 세계 여러 곳에서 배워갈 정도로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데 파격적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성시매거진에 항상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하나님의 전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성시 매거진을 발간하느라 애 많이 쓰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고맙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승호 총장
강원대학교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모토로 하는 '춘천 성시' 매거진의 2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경제개발이 막 시작되던 1972년부터 춘천지역의 영적각성을 위해 성시화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IMF로 온 국민이 삶의 고달프던 1998년 성시 매거진이 창간되어 지역의 영적 부흥을 견인하게 된 것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거룩하게 살자는 성시화운동의 상징성을 더 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는 당장의 삶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경쟁, 고령화 부담 등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경쟁에 몰입하게 되고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영적 공간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춘천 성시' 매거진은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춘천 시민들에게 잘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현안들을 영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회도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춘천 지역을 사랑하고, 성시화 하려는 소명 하나로 이끌어 오신 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 성시' 편집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령 200호를 맞이하면서 '춘천 성시' 매거진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교회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허브로, 또한 여러 기관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모으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무영장로
춘천직장선교회 연합회장, 춘천기사선교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 장로교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그 디딤돌이 되고 있는 춘천성시 매거진의 모든 사역자분들의 기도의 눈물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춘천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와 세계 땅 끝까지 전하여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선배님들과 지금도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영 본부장
강원CBS

매거진 '춘천 성시'를 접한 것은 이제 불과 2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2일 강원CBS 본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 성시'를 접하면서 춘천의 영적 지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춘천에 대한 이미지는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맑은 호반의 도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오고 나니 '신앙의 열정이 뜨거우면서도 순수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강원CBS를 만들어주신 뜨거운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적 도전과 감동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춘천 성시'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죠. 춘천 성시화를 위해 우선 나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 길에 '춘천 성시'는 귀한 벗이 되리라 믿습니다. '춘천 성시'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창민 목사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매거진 200호를 축하드리면서....

매월 부산성시화운동본부로 배달되어 오는 매거진을 통해 1972년부터 끊임없이 거룩한 춘천도시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동역자분들과 성시화 운동의 중추적인 홍보 역할을 감당하는 춘천성시화 매거진 편집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 2014 해운대성령대집회 525회개의 날 백서를 만들면서 5개월여 기간동안 행사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백서에 담아내는 작업은 참으로 깊은 은혜와 동시에 시간과 자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편집팀 위원들께서는 매월 매거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매거진이 가능할까라고 여겨져 몇 번이고 춘천으로 전화를 걸기고 한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맘으로 춘천성시화를 홍보하고 춘천과 타 도시의 롤모델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모든 편집위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흥을 안게 됩니다. 199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200

호를 제작하는 이 시점에서 춘천 성시화의 홍보와 도시 문화의 중심으로 활용되었던 이 매거진이 춘천을 넘어 각 도시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의 영역에서 볼거리 읽을거리 감동거리를 담아내어야 하는 부담감이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내용, 훌륭한 작품을 향한 기대도 있겠지만 우리시대의 온라인상으로 빼앗긴 젊은 세대의 시선을 오프라인 상에서의 춘천성시화 매거진이 더 깊은 감동을 담아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내용과 다시 나누고 싶은 풍성한 이야기 거리를 통하여 춘천 성시화의 초석을 다져 가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정재호 목사

(늘사랑교회, 춘천장로교연합회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직전 사무총장)

먼저 성시 매거진이 200호가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도시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그 불씨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성시매거진이 크고 작은 수많은 유익한 역할을 해 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시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편집위원들과 섬기시는 사무총장 이병철 목사님과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하의 인사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성시매거진은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200호를 넘어 300호, 500호, 1000호가 발행되어지고 성시화운동은 더 큰 불꽃이 되어 타오르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말없이 지켜보며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내시기를 부탁드리며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마지막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고백한 "발은 땅위에, 눈은 구름 너머를 보아라, 그리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기억하며 성시화운동본부를 지키며 되새겨 보았던 오린 엘 크레인의 시, "주여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높은 탑과 같이 치솟은 큰 떡갈나무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잘 자라났기 때문에 이처럼 크고 튼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1
춘천성시신문 창간호에서 만난 인물



조남진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본부장)

춘천성시신문 창간 200호를 맞이하여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이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금, 춘천성시신문/춘천성시매거진(1998년 9월15일 창간) 200호를 맞이하여 70년대 초부터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시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본부장으로 활동하셨던 조남진 장로님(순복음춘천교회)을 찾아 뵈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창립과정, 춘천성시신문/춘천성시매거진의 창간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창립당시 동역했던 교계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산실, 평신도성경구락부

1970년대 초 평신도성경구락부 모임으로부터 춘천성시화운동추진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과정의 산 증인이신 조남진 장로님께서 "당시 강원일보 편집부국장으로 병명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조용기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복된 후, 당시 춘천C.C.C 윤수길 간사와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윤수길 간사를 통하여 김준곤 총재가 춘천을 방문하여 당시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를 만나 춘천성시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고, 춘천의 온 교회와 대학생선교회가 힘을 합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연호 목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샘밭침례교회 허 걸 목사가 총무, YMCA 총무 김홍규 장로가 협동총무로 평신도성경구락부회원들이 손발이 되어 72년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춘천성시화운동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회고하시면서, 최근 일부 목회자들이 춘천성시화운동이 대학생선교회가 주최한 행사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당시 C.C.C가 전개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화를 겸하여 열렸기 때문에 전국에서 약 5천 명 가량이 모여들었는데 여름방학이라 각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고 소양강변에 특설 취사장을 설치하여 2군단 군용트럭이 동원되어 밥을 나르는 등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하였다.

기관장모임을 통해 춘천성시화운동의 재점화로 인해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연합회 창립, 춘천성시신문 창간

70년대 초에 시작한 춘천성시화운동이 90년대 중반 춘천에 새로 부임하는 기관장들이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재점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춘천홀리클럽 초대회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본부장을 역임하신 조남진 장로님께서는,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고 1998년 춘천성시신문이 창간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관장기도모임을 통하여 직장을 복음화하고, 믿지 않는 기관, 단체장을 믿게 하여 성시요원화 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6월8일 춘천홀리클럽을 탄생시키고, 1996년 9월19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교역자연합회(회장 이원호 목사)와 협의하여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창립하게된 것이며, 기독교연합회는 교단간의 교류와 연합의 사역을 목적으로, 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성시화를 위해 각각 독립된 사역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성시신문을 창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1996년 제1회 춘천성시화선교대회(9.30~10.6)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성시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을 의논하면서, 성시화운동의 홍보와 문서선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신문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해오다가, 마침 공석이 된 사무국장 자리에 그 동안 장로로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직을 몇 차례 역임한 강원도청 관리직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손거울'이란 책을 낸 경험이 있는 조충환 목사를 영입하여 1998년 9월15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빈틈없는 성품에 집념이 강하여 기사거리 수집을 위하여 교단별 직능별 기자, 편집위원 모집, 편집위원회의, 신문 틀 짜기, 사진촬영, 확보, 사설쓰기, 등 초판편집 과정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기까지 소요재정 충당을 하기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2003년 사임하시기까지 5년여간 헌신하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고, 사임 후 장기간 투병생활하시다 소천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셨다.

춘천성시화운동사에 기억될 주역들

그리고, "춘천성시화운동이 오늘에 이르기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1996년 운동본부가 생긴 후 교회 협력과 재정후원이 어려웠던 시기에 초대 대표회장 직을 잘 감당하여주신 석사교회 임택창 목사님, 후임 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님, 그리고 창립기금으로 일천만원을 후원해 주신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으며, 평신도로 1998년 저를 도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담당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부활절에 '십자기 평화대행진'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열성을 다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 약 4년간 침체상태에 있던 춘천홀리클럽을 재건하여 5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성시합창단, 성시무용단 창단,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이란 역사기록 책자 발간 등 춘천성시화운동 사역을 참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오신 고 이학규 장로는 우리 춘천성시화운동사에 길이 기록될 평신도지도자로 기억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끝으로 성시매거진에 대한 평가와 조언의 말씀을 부탁하자, "지금까지 200호가 되기까지 중단없이 진행해 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기 여러 편집위원들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성시신문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성시신문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춘천성시화의 좋은 길잡이가 될 줄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다.

취재 최영조 기자, 김영명 장로

2
춘천성시신문 창간호에서 만난 인물



조은제 목사/ 의사, 순복음춘천교회 협동목사, 일본비전교회 협력선교사, 베드로선교센타 대표, 시니어선교훈련원장
기정희 사모/ 의사, 시니어선교훈련원 부원장

바쁘신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창기 성시화운동본부 출범, 그리고 성시신문 발행과 관련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1972년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줄기차게 이어져 오다가 전용태 장로께서 춘천지검에, 또 양인평 장로께서 춘천지법에 부임하시면서 재점화되는 기회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춘천에서 베드로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한지 약 십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학규 장로를 비롯하여 춘천시 기관장들 약 20-30분이 유봉여고 앞에 있던 춘천지검장 관사에 매주 모여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즈음에 성시화운동을 학술적으

로 재조명하고, 구체적 활동을 문서화하며, 또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간하여 타 지역 성시본부와도 교류, 협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성시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창간호부터 충성되고 성실하게 수년간 조충환 목사(당시 편집인)와 그 따님이 사역을 감당하셨고, 당시 춘천 월드비전 안에 있던 성시신문 사무실에 가면 늘 두 분을 뵐 수 있었는데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또한 군 선교를 위해 춘천에 오셔서 군 선교뿐만 아니라 성시화운동본부 사역, 북한에 복음풍선보내기 운동, 성시신문사역등을 열심히 동역하셨던 이상표 목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수고하고 계시지요.

당시 춘천성시화운동과 성시신문 사역의 열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대단히 뜨거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당시에는 기관장 홀리클럽, 미용인 홀리클럽, 운전기사 홀리클럽등으로 세분화되어 직장, 직능별로 신우회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저는 당시 춘천의료원에서 간호사들과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근무 후 병동 찬양을 하고, 낮에는 간호사들이 각 병동에서 전도했던 환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또 예스컴(대표: 길선회 목사)의 열정적인 활약을 통해 춘천시내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독동아리가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전 성도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겠다는 큰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와 춘천 성시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4대째 크리스천입니다.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은 아버지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며 버스를 타시면 승객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춘천은 국군춘천병원에서 군의관 근무를 하느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에게 전도하는 병원을 세우고자 병원이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붙였지요. 또 선교하는 병원으로서 병원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떼어 아시아구제기금을 조성하여 해외선교단체들뿐 아니라 CCC, MF, YWAM등등의 선교단체들을 후원 협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평신도연합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시운동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시운동은 기성세대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으로도 강조됩니다. 두 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대를 이어 주님을 위해 의미 있게 사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큰 아들은 34세로서 지금 이비인후과 군의관이고, 며느리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고, 둘 다 중고등학교 때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11살에 학생선교사로 인도 캘커타에 가서 5년, 그 후 영국 런던 킹스컬리지에서 '분쟁, 안보, 개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군복무 마치고 월드비전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우간다 지역을 담당하여 사역했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대비하여 고려대 북한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아세아문제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두 분이 집중하시는 사역과 성시신문 200호를 맞이하여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0년을 목표로 일본 선교사로 나갔다가 제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21세기시니어선교회의 시니어선교훈련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마지막 때를 맞아 전성도 사역자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 특히 선교에 헌신하여 겸손한 헬퍼로 나서야 합니다.

또 작년 10월엔 '성과학연구협회'를 발족하여 기독 교수, 의료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아예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도 막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계략에 단호히 맞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또 춘천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고 격려하면서 눈에 띄는 성시 무브먼트가 활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검승부의 시대이며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지금은 우리의 각오와 무장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신앙,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는 신앙으로 재정비되기를 소망합니다. IS에 의해 참수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고백하며 제물의 양처럼 가만히 목 베임 당했던 이집트와 수단의 크리스천들, 오히려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갖기를 서로 권면하고 다짐하는 성시운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목표로 삼을 때 주님은 친히 일하시어, 춘천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춘천성시신문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취재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3
춘천성시신문 창간호에서 만난 기사



【12】1998년9월15일(화요일) 聖 市 新 聞 창간호

춘천성시화의 길(Dream→Vision→Mission)

안동규 교수
(한림대학교수)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좁은 길, 넓은 길, 성공의 길, 멸망의 길...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들이 앞에 놓여있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의 길인가.

첫째로 이것은 꿈(Dream)의 길이다. 30여년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시화의 꿈을 품게 되었다. 춘천도성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며, 춘천을 성시로 만들자는 꿈이었다. 그 길은 꿈과 소망의 길이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성시화를 꿈꾸며 그 길은 오늘까지 달려왔던 길이다.

둘째로 성시화의 길은 비전(Vision)의 길이다.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비전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비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꾸었던 꿈이 후배들과 함께 비전으로 승화되고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셋째로 이 길은 사명(Mission)의 길이다. 앞선 자들이 품었던 꿈이 비전으로 바뀌었고 이제 춘천 성시화는 춘천지역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꿈의 길에서 비전의 길 나아가서 사명의 길 이것이 바로 성시화의 길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시화의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성시화의 길은 과연 어떤 성격의 길이어야 하는가.

첫째로 성시화의 길은 공동체적 길이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전체적인 길이어야 하며,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동참을 하는 모든 지적은 조직적이기보다는 참여적이어야 할 것이며, 대표적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 몇몇 사람들이 대표하는 형태보다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넷째로 성시화의 길은 춘천에서 시작하여 다른 도시로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원주성시화, 강릉 성시화, 대전 성시화, 인천 성시화, 제주 성시화… 끊임이 다른 길로 이어져야 한다. 길의 성명은 그 길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다. 춘천성시화는 따라서 다른 지역 성시화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 도시 전체가 통째로 거듭나서 다른 도시 전체를 통째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춘천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춘천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됨때 춘천도성은 춘천교회가 되는 것이다. 춘천성시화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될 길이며, 힘든 길이지만 믿는 자들이 먼저 걸어야 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길이다.

춘천성시화의 길(Dream-Vision-Mission)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좁은 길, 넓은 길, 성공의 길, 멸망의 길...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들이 앞에 놓여있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의 길인가.

첫째로 이것은 꿈(Dream)의 길이다. 30여년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시화의 꿈을 품게 되었다. 춘천도성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며, 춘천을 성시로 만들자는 꿈이었다. 그 길은 꿈과 소망의 길이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성시화를 꿈꾸며 그 길은 오늘까지 달려왔던 길이다.

둘째로 성시화의 길은 비전(Vision)의 길이다.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비전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비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꾸었던 꿈이 후배들과 함께 비전으로 승화되고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셋째로 이 길은 사명(Mission)의 길이다. 앞선 자들이 품었던 꿈이 비전으로 바뀌었고 이제 춘천 성시화는 춘천지역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꿈의 길에서 비전의 길 나아가서 사명의 길 이것이 바로 성시화의 길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시화의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성시화의 길은 과연 어떤 성격의 길이어야 하는가.

첫째로 성시화의 길은 공동체적 길이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전체적인 길이어야 하며,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동참을 하는 모든 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적 길이어야 한다.

둘째로 성시화의 길은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길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어야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어야 한다. 춘천도성의 모든 영역-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의 주되심(Lordship)이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는 성시화가 되어야 한다. 춘천성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춘천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춘천 복음화는 춘천 성시화의 하나의 부분적인 목표이다. 성시화는 복음화보다 더 큰 그림이며 더 궁극적인 목표이다.

셋째로 성시화적인 길은 청지기적인 길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은사가 청지기적 사명을 통해 모두 드러나야 한다. 춘천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춘천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춘천도성의 하나님나라가 이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의 성격은 조직적이기보다는 참여적이어야 할 것이며, 대표적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 몇몇 사람들이 대표하는 형태보다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넷째로 성시화의 길은 춘천에서 시작하여 다른 도시로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원주성시화, 강릉성시화, 대전성시화, 인천성시화, 제주성시화...끝없이 다른 길로 이어져야 한다. 길의 생명은 그 길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다. 춘천성시화는 따라서 다른 지역 성시화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 도시 전체가 통째로 거듭나서 다른 도시 전체를 통째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춘천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치며,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춘천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때 춘천 도성은 춘천교회가 되는 것이다. 춘천성시화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될 길이며, 힘든 길이지만 믿는 자들이 먼저 걸어야 될 그리스가 가신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길이다.

글 안동규 교수(한림대학교)

4

춘천성시신문 창간호에서 만난 기사

【16】1998년9월15일(화요일) 聖 市

성시화된 춘천의 앞날을 꿈꾸어 보며



김주환 목사
순복음 춘천교회

얼마전 제가 몸담은 교단의 계절대학원 마지막 학기의 몫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방콕 시가지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수상시장과 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황금사원은 인간의 온갖 재주와 정성을 모아 건축한 결정품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보다 더 헌신적이고 절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제반형태와 사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였는데 그 사회속에 나타난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마약문제, 총기살인사건, 이혼, 성적부패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춘천에 인구50%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성이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범죄가 줄어들것입니다. 최악으로 말미암은 부패함이 힘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돌리는 새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모여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며 복음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빈곤한 자를 보살피고 병든 자를 위문하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가 함께 할 것입니다.

시의회, 도의회가 기도하며 개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정의 지침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교회마다 주일날 성경찬송을 들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로 거리가 메워지고 모든 시장이나 상점들은 안식을 위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시화된 춘천의 모습을 보기위해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꿈만같은 잠꼬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지 말고 춘천의 200~300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그 꿈을 꾸어 볼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어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시화된 춘천의 앞날을 꿈꾸어 보며

얼마전 제가 몸담은 교단의 계절대학원 마지막 학기의 몫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방콕 시가지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수상시장과 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황금사원은 인간의 온갖 재주와 정성을 모아 건축한 결정품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부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보다 더 헌신적이고 절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제반형태와 사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였는데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난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마약문제, 총기살인사건, 이혼, 성적부패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춘천에 인구 50%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성이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부패함이 힘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모여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며 복음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빈곤한 자들 보살피고 병든 자를 위문하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가 함께 할 것입니다.
시의회, 도의회가 기도하며 개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정의 지침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교회마다 주일날 성경찬송을 들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로 거리가 메워지고 모든 시장이나 상점들은 안식을 위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시화된 춘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꿈만 같은 잠꼬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지 말고 춘천의 200-300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그 꿈을 꾸어 볼 때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어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글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





2015 블레싱춘천이 26일(금) 저녁7시~오전1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있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김창환대표회장) 주관,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홀리클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춘천교경협의회, 춘천CBS 후원으로 있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5 블레싱춘천에는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교회 본당이 성도들로 가득 메워졌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연합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Section 1 (7시~9시)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의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 이태희목사(국제변호사)의 "강원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강의가 있었고, 회개기도시간이 있었다.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키소서. 그 눈물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가 지나시도록, 간절히 회개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Section 2 (9시~11시)에서는 온누리교회의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이 있었고, 김재현박사(KIATS)의 "통일한국의 수도, 춘천"이란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낸 춘천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해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다. 이어서 춘천과 강원도, 한국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Section 3 (11시~1시)에서는 예수전도단의 찬양팀인도로 찬양이 있었고, 차성도교수(강원대학교)의 다음세대, 군선교란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한국의 청년들이 꼭 한번 거쳐가는 군대, 특히 강원도는 군대와 뗄 수 없는 곳이기에, 춘천 강원도는 군선교의 사명을 품고 있는 곳이며,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어서 다음세대를 축복하며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Section 1

강원학교인권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태희 목사(서울온누리교회 부목사, 국제변호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만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분별하여 그에 따른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든 갈등의 배후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갈등은 같은 문제라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세계관의 갈등이 있다. 찰스 콜슨(Charles Colson 1931-2012)은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그림이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1. 나는 누구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 신념 3가지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 앞의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 답을 하고, 인본주의 세계관은 진화, 억압, 대적이라 답을 하게 된다. 문제의 근원과 해결방법이 다른 이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갈등으로 이 갈등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창2:16-17)

세계관은 서로 다른 윤리관과 인권의 개념을 만들어 낸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계관과 윤리관의 기초로 말하는 것으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다. 사실 진정한 인권이란 개념은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관을 기초해야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인권이란 개념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인권이란 개념을 논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인권이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된 시점은 2차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과 일본의 만행 때문이었다. 그로인해 인간을 파괴하는 만행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1945년)을 만들었다. 그리고 1946년에 엘리엇 루즈벨트가 세계인권선언문을 만들었다. 모든 국제인권법 국제관습법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인권의 기초는 유엔과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이 모두는 미국독립선언문(1776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다. 그 권리 3가지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한다."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다.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라는 개념 때문에 생겨난 권리이다.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라는 개념이기에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절대성) 또 창조주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제한성) 이 개념에서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헌법이 탄생한 것이다.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의 문제점 (간단히 2개만 살펴본다.)

①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학생의 권리는 73개, 의무는 18개, 교직원의 권리 35개 의무는 6개, 학부모의 권리는 10개, 의무는 6개로 결국 학생의 권리를 부각한 것이다. – 판단력이나 모든 면에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이다. 심각한 것은 학생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애매모호함이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애매모호한 것이 학생을 해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통과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학생이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그 전에 비해 10배가 되었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이 가르쳐져야 하는 곳이다.

② 제3조 1항(인권 보장 원칙)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을 넣어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식을 가진 것은 강원도 학부모들을 경시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할 일

세계관의 갈등과 인권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일어서야 한다. 본인이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은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차별금지법안을 향해 나가게 되어있다. 이런 조례 법안이 통과되어 동성애 법안이 정상화되면 성경적 윤리는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올바르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2

CPU, Chuncheon, Pax, et Unificatio (평화와 통일의 수도, 통일한국의 수도 춘천 2015)

김재현 박사(KIATS)

입산자 불견산(入山者 不見山)이)란 말이 있다. 산에 들어간 사람이 산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가 춘천에 살고 있지만 춘천을 잘 모를 수 있다. 김재현박사는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춘천이 갖는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70-100년의 데자부(deja vu)에 걸린 것과 같은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마치 60년마다 반복되는 듯한 모습이다. 1894년(2014갑오년-동학농민혁명)/1895년(2015을미년-명성황후시해)/1896년(2016병신년-독립협회시작)특별히 2015년은 광복과 분단 70년이자, 한국전쟁 65주년, 한일수교 50년을 맞는 해이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2016년 소록도 100주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 한국정부수립 60주년, 한서 재충전의 땅 강원도에 낙향 100년, 2019년 3.1만세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년, 2020년 손양원(애양원)-김정복(소록도)-문준경(증도) 순교 70년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많은 일들이 겹쳐져 있다.

강원도는 남쪽에 18개 시군이 있고, 북쪽에 17개 시군이 있다. 평화로 하나됨을 기다리는 남강원과 북강원이다. 강원도는 수복지역의 상징성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은 한반도의 등허리, 척추 기능을 갖고 있다. 척추가 튼튼해야 온 몸이 건강하듯 강원도가 건강하게 회복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생태와 휴양림의 도시로서 휴식과 재충전의 땅인 동시에 안보전시관의 도시이다. 이런 시대에 춘천은 과연 어떤 비전을 품고 갈 것인가?

이 시대의 정신은 평화와 통일이다. 분단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의절적하다.
Chuncheon : 평화와 통일의 시대담론과 시대정신을 만드는 곳
Pax(Peace): 중국-한국-일본의 극동아시아의 긴장과 평화의 주춧돌을 놓을 곳
Unificatio(Unification): 남북의 분열과 통일을 꿈꾸는 도시
춘천성시화: 평화와 통일을 토대를 제공할 춘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1. 먼저 춘천을 노래하도록 해야 한다.
춘천을 알리려면 서동요처럼 춘천의 비전을 닮은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에 부르게 하자.

2. 춘천기독교의 역사 유적을 담음 책 출판.
춘천이 기독교 역사, 특별히 성시화 운동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춘천의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춘천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춘천의 기독교 역사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3. 뮤지컬 '봉의산 아리랑'(가칭)
춘천의 봉의산은 민족의 고난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민족의 고난 가운데 춘천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여주자.

4. 분단-통일 70주년 토크 Concert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다. 이제 통일의 시대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주제를 갖고 토크 concert 형식으로 열어서 저변 확대를 하자.
이런 전략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PU(평화통일)센터, 춘천기독문화재단를 만들고 정례세미나(평화-통일 전문가 세미나, 강원도기독교역사문화세미나)를 통해서 춘천선언문을 만들어 발표함으로 춘천의 시대적 사명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 어떻게 모아 갈 것인가? 여기에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

1. 1년에 한번 성시화를 위한, 통일을 위한 예배시간을 확보한다.

2. 교회 전체 예산의 1%를 춘천사랑을 위한 공적 자산으로 만들자.

3. 출석교인 10%가 월 1만원이라도 헌신하면 이런 개미 후원자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Section 3

다음세대 : 군부대

차성도교수(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창조과학회 강원지부장)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

메르스인가 북핵인가 빈부격차인가? 위협은 바로 한국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750년 한국인이 소멸한다고 하였다. 여성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 데 2013년도 한국은 1.190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교회이다.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10대 20대인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다. 2006년부터 주일학교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가장 빨리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영국은 1930년대부터, 미국은 1960년대부터 감소되었다.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는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 되고 편의점이 되고 클럽이 되고 모스크가 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적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해결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해결하기 좋은 조건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군에 입대한다. 이들을 복음화 하면 한국복음화이다. 그렇기에 영적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은 군복음화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군복음화에 달려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모든 병사는 102보충대를 거쳐 간다. 이 곳이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 처음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병사 60%가 생애 최초로 온 교회에 온다. 현재 이곳에서 매주 주일 진화론으로 교육받은 청년들에게 창조과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군부대에도 가고, 신병교육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병사의 고백을 들은 후 신병교육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군복음화를 할 것인가?

현재 군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진중세례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복음전파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일부 군교회에 집중하는데 모든 군교회로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부 교회만이 참여를 하는데 이는 공통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기에 관심을 넓혀야 한다. 네 번째는 위문행사 위주가 아니라 정기적인 방문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신병교육기간을 이용한 군복음화이다. 군선교의 목표는 군 복무기간을 통해 군제자화가 되어야 한다.

군선교의 시작은 어떻게

1. 군선교의 현장을 방문한다. – 젊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2. 군선교를 위해 중보하자. –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통해 역사하길 기뻐하신다.
3. 군선교에 동역하거나 참여한다. – 개인, 교회마다 활력이 넘쳐나고 한국 복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 군대와 교회, 선교팀과 중보팀이 뭉쳐야 한다.

군복음화가 한국복음화의 키라는 것을 알았다. 군선교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시간과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군복음화에 달려 있다. 특별히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 군부대가 지천에 있는 곳, 춘천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군복음화이다. 102보충대의 신병들과 신병교육대의 훈련병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많은 교회와 선교회들이 군복음화, 군제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고를 부탁드립니다.

—

취재 이병철 기자, 이은정 기자

2015 블레싱춘천 모임에 앞서 한 주간 새벽기도회로 도고하기 위한 모임이 홀리클럽(황병호장로)주관으로 열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2015 블레싱을 마치며, 특별한 블레싱의 시간도 가졌다. 다음세대를 축복하고, 아비세대를 축복하며, 영적아비인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쳤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춘천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시간이 되었다. 모두 헤어짐의 아쉬움을 이야기 하며 이 모임이 매달 지속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 하반기에 2015 블레싱이 한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 2015년 제 19회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
7월9일 ~15일 오전 10시부터 6시 / 춘천문예회관

洗足

· 작가/ 김춘배(강원기독교미술인회 회장
· 재료/ 수채화 · size / 28cmx37.5cm · 제작년도 / 2015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 요한13:1-20)

예수님은 당신 행위에 담긴 교훈적인 의미를 가르쳐주시는데 즉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제자들도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17절). 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에게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심이라

취재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춘천성시투어

성시화운동을 말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과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호반의 도시 춘천 그리고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를 언급한다. 춘천성시 매거진 지령 200호를 맞이하여 성시 투어의 조감도를 제시해 본다.



② 분단 한국의 역사물 38선 경계석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춘천에는 38선의 경계석이 있다. 남북이 잘린 아픔을 지닌 곳이다.



봄내길, 물레길, 철길, 둘레길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 그 길에 있는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을 통해 댐과 같은 성시화의 풍부함과 나눔이 있기를 바란다.

① 고 김준곤 목사가 안장된 경춘공원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90-21

선산이 있는 전남이 아닌 성시화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춘천에 묻히고 싶다는 뜻에 따라 이곳에 묻힌 고 김준곤 목사는 6. 25 때 가족이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고 믿고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한 도시만이라도 완전히 복음화되기를 꿈꾸면서, 그 당시 잘 살아보자를 외칠 때 거룩하게 살아내자를 외친 성시화운동의 불을 지폈다.



⑦ 한서 남궁억 기념관

홍천군 서면 모곡2리 387

시간이 있으면, 암울한 시대에 민족에게 새로운 도전과 역할 과제를 주님 안에서 찾은 한서 남궁억을 만나볼 수 있다. 한서 기념관(홍천 서면 모곡리(보리울))을 둘러보라.

취재 이영규 기자 abba-fahter@hanmail.net



4 옛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춘천예총

춘천의 첫 교회 옛 춘천중앙감리교회는 1970. 6. 28일 건축되었고, 2001년 1월에는 옥천동에서 퇴계동으로 옮겨 교회100주년기념교회인 현재의 교회를 건축했다. 춘천의 역사가 될 구 성전은 현재는 예배처소가 아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교회문화라도 남아야 하는데 우린 그 문화조차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



3 춘천대첩의 현장 소양 1교

춘천시 우두동

1950년 6.25당시 소양1교는 춘천대첩이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격전지 중 하나였다.
이 곳에서 막아낸 3일의 시간은 이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평화 수호의 도시, 춘첸

5 성시화대회의 첫 개최 장소

춘천시 공지로 317번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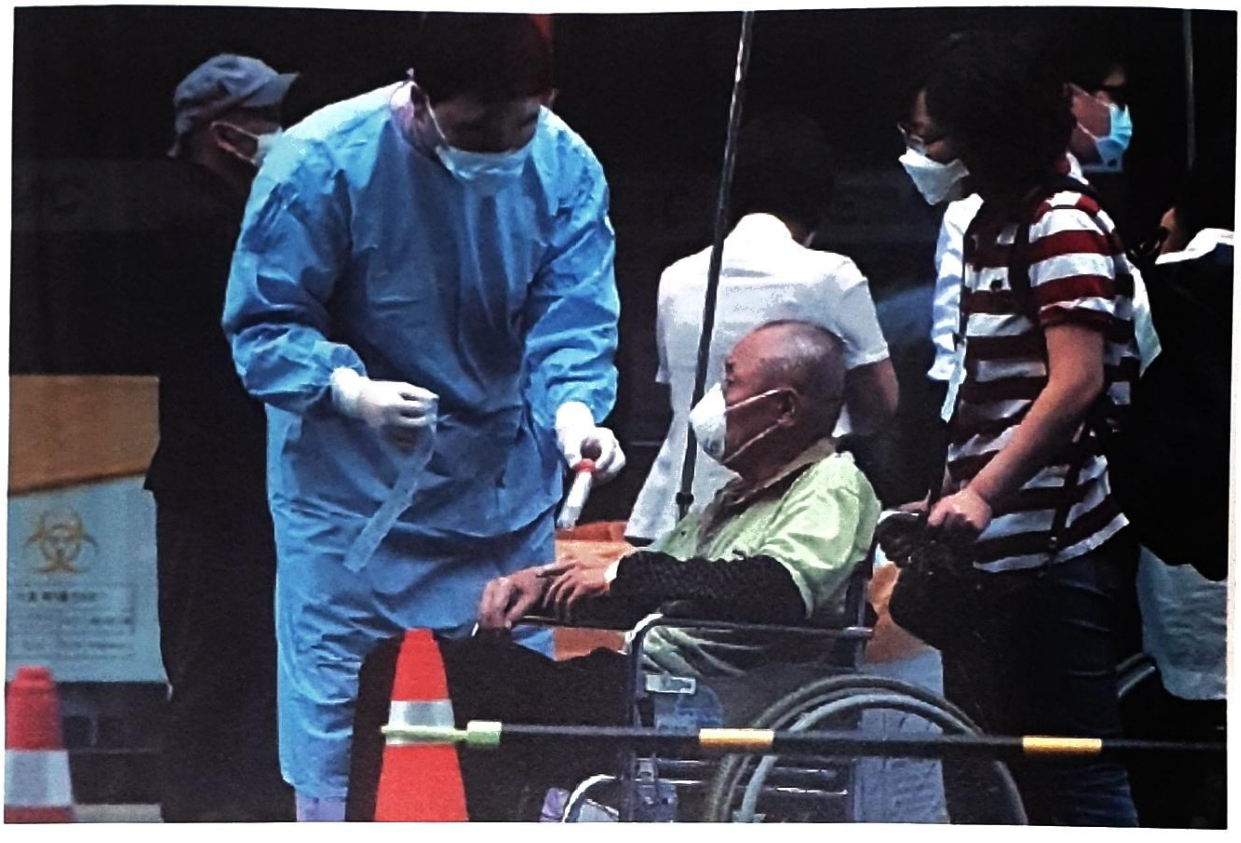
실내체육관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진으로만 우리는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당시 건물은 흔적도 없으나 그 때의 부흥의 열정들이 우리 심령을 통해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6 춘천중앙감리교회(1898년 창립) 제1대 담임전도사 이덕수의 추모비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

현 춘천중앙감리교회에 가면 옛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제 1대 담임전도사 이덕수의 추모비가 세워져있다. 추모비에는 1905년 봉의산 기슭의 초가 예배당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메르스(MERS) 유행을 바라보며

글 정형만 원장 (참사랑내과)

메르스는 지난달 20일 중동을 여행하고 돌아온 60대 남성에서 첫 국내 발병이 확인됐다.

2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181명이 되었고, 사망자도 31명이라고 한다. 메르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이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망자가 70~80대로 천식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치사율이 15.7%로 높고,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40~60대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 평소 건강했던 30대 의사와 경찰관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어떤 확진자도 내가 메르스에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백신이 없는 병에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당연하다.

안타깝게도 메르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 계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태양의 표면의 코로나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일 뿐 큰 의미는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스(SARS)도 코로나바이러스다. 게다가 백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반해 백신 개발 성공률은 10% 미만이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이 활발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그레펙스, 이노비오, 노바박스와 같은 중소 바이오 기술업체들이 메르스 백신을 개발 중이나, 아직 임상실험 이전의 초기 단계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은 상황을 관망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가 백신을 사용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상업적 시장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백신이 없다고 메르스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치료도 가능하다. 메르스의 위험을 과장하여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큰 폐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질환은 '결핵'과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결핵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이 OECD 34개국가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뿐만 아니라, 다제 내성결핵 환자 비율이 단연 1등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2013년 36,089명의 환자가 진단되었고, 1년간 2,466명이 사망하였다. 결핵은 공기감염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매일 100명이 결핵에 새로 감염되고 6-7명이 사망하고 있다. 전염성이 있는 결핵균 보균자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매일 활동성 결핵환자가 대중교통인 기차나 고속버스 택시 시내버스 등을 타고 다닐 수 있으며 학교 강의실 안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극장 안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활보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메르수 연간 사망자 수를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병을 앓은 다음 후유증도 메르스보다 결핵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정치권과 각종 언론들은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결핵뿐이겠는가? 동성애로 인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발생은 매년 1000명 내외씩 증가하고 있다. 언론과 정

치권은 메르스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결핵과 동성애(에이즈)에 대해서 매일 대책회를 소집하고 콘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언론은 매일 대서특필하고 있는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2009년 세계적 공포를 유발했던 신종플루의 기억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정부는 매일 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수와 사망자수를 발표하였고 언론이 이를 집중보도하면서 국민들은 수개월간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신종플루와 연관된 사망자 수는 1년간 263명으로 집계되었고, 평소에 계절 독감으로 인해 매년 사망했던 환자수 2,369명(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5-8년도 3년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분석)과 비교할 때 신종플루가 일반적인 계절 독감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가 처음 확인된 2009년 8월15일 이후 연말까지 5개월간 공식적으로 확진된 환자가 740,835명으로, 1일 평균 5,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매일 5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메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했었다.
메르스가 한국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또, 앞으로도 질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병원균은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고 세계화시대에 여러 경로로 우리사회에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룰 때는 risk communication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이슈에 우리나라처럼 모든 언론매체가 앞 다투어 사망자수와 확진자의 이동경로까지 발표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 불필요한 불안감만 더 조성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위기를 차분히 관리해나가는 성숙한 행정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는 이미 '양치기소년'처럼 신뢰를 잃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된 발표와 정책수행이 필요한데 학교휴교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의견충돌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춘 천 예 찬

춘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춘천, 성시화운동의 발상지 춘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즐거운 레저관광도시, 청정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호반 도시 춘천, 야간 활동에 불안함이 없는 치안 확보의 도시 춘천.

2014년 전 국민 대상 조사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 가장 살고 싶은 도시에 1위로 춘천이 선정된 점이 이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

근래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의 유치로 춘천에 거는 기대가 극대화 되고 있다. 춘천의 상□하중도에 129만1484㎡에 달하는 약 39만평 부지에 5,011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이 완공되면 년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44억원의 지방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9,800개의 신규 일자리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춘천이 세계 8번째 레고랜드 도시가 된다고 한다. 나아가 삼악산에 4.2㎞의 케이블카 설치계획도 현실화 되고 있으며, 삼천동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준비하고 있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7월중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은 춘천이 더욱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이로써 춘천도 전국단위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춘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마임축제, 인형극 공연, 레저경기대회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광레저로 삼악산, 점봉산, 구곡폭포, 봉의산 등의 등산코스와 김유정 문학촌, 장절공, 청평사, 남이섬, 춘천레일바이크, 북한강 자전거길, 의암호수 카누, 제이드가든, 춘천도립화목원, 춘천박물관,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꿈자람 어린이공원 등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별로 즐길 곳이 많아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강의와 집회들이 늘고 있다. 매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와 통일광장기회, 통일기도모임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춘천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청강사 중 한 분은 지정학적으로 춘천이 38도 선상의 중심도시이며, 42년여의 성시화로 준비한 통일한국의 수부도시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 이렇게 춘천은 관광레저도시인 동시에 통일 후에 더욱 크게 성장할 중심도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춘천성시 매거진 200호를 축하하며, 춘천 기독교계의 소식을 폭 넓게 전해 줄 뿐 아니라 귀한 옥고들로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성시를 위한 매거진으로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글 황병호 장로(홀리클럽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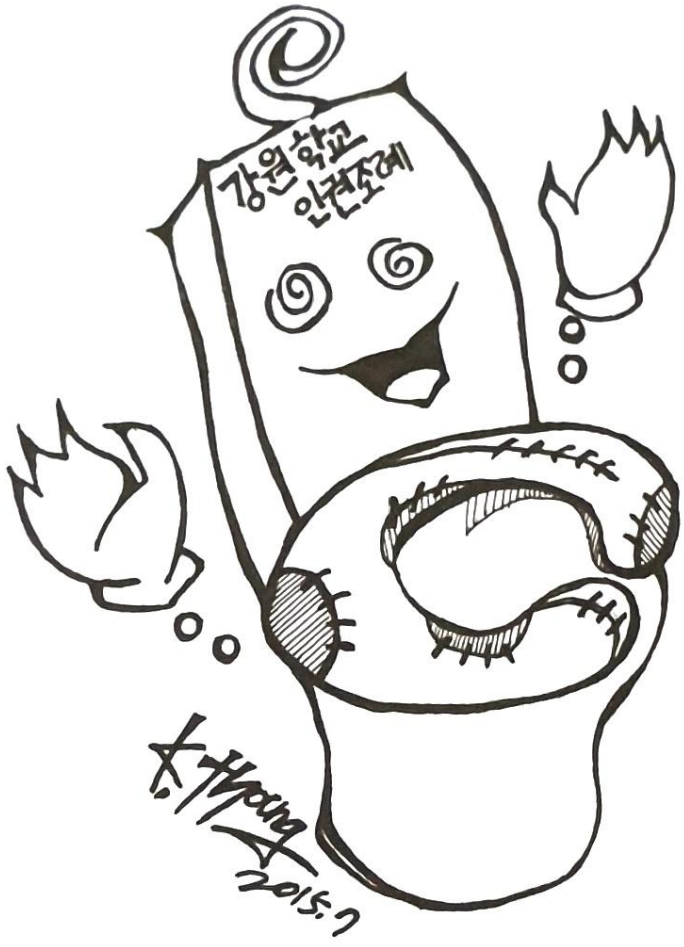
열정을 다하여

중국역사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다. [사기]를 집필했는데 사마천은 동양 최대의 역사가로 불린다. 무려 130권의 역사서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마담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역시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꿈은 중국의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차례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들 사마천에게 유언하기를 '내 한을 풀어다오. 나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를 못했다. 네가 내 대신 좋은 역사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다오"하였다. 사마천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역사서 집필에 매진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서 집필에만 매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라의 한 장군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마천이 옹호하는 글을 쓴 일이 화근이 되어, 사마천은 옥에 갇히고 끝내는 궁형이라는 비참한 형에 처해진다. 궁형이라는 것은 남자의 상징을 자르는 형벌로서 어떤 면에서는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는 수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기록에 보면 사마천은 궁형을 당한 후에도 계속 역사서를 집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을 마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 하나로 나는 궁형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마천은 끝까지 방대한 [사기]를 완성한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역사서를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 그는 역사서의 집필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열정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이 어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열정과 다르다 하겠는가? 우리도 하루 하루를 받은 사명을 따라 살자. 열정을 다해 살자.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

글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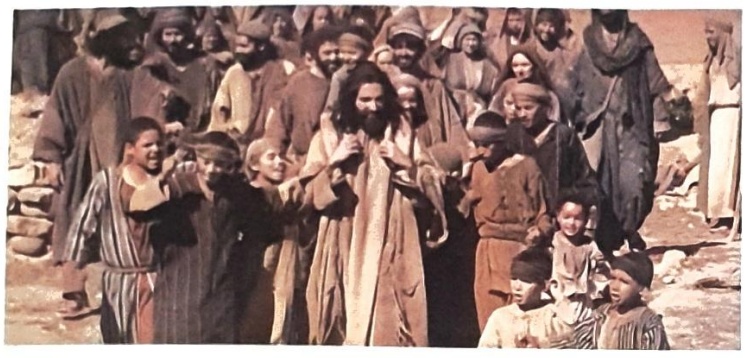
그림, 글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 편하게 앉아 내가 안아줄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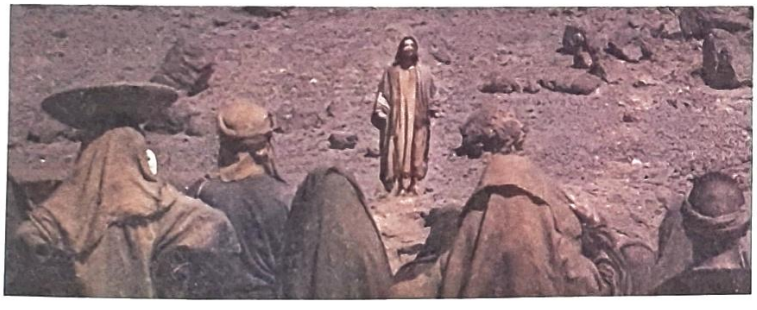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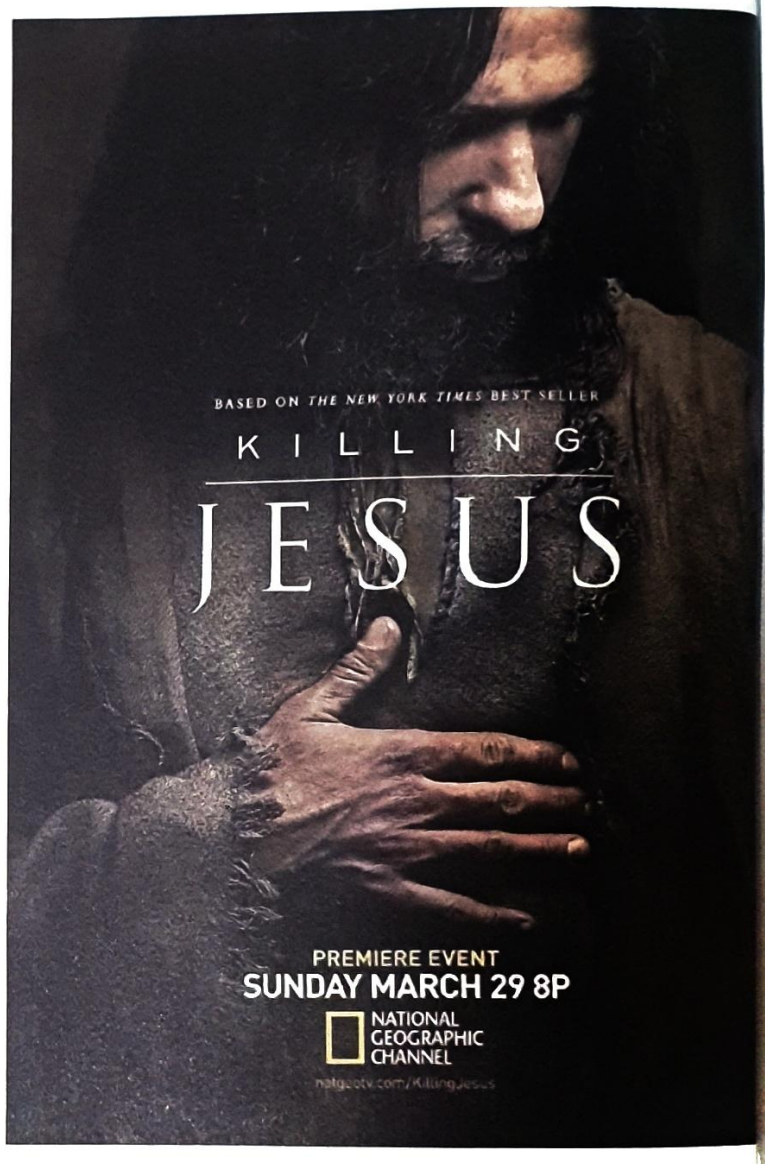
'인권' 이란 이름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방종' 으로 내모는 강원학교인권조례

1. 청소년도 섹스할 권리를 달라??
2.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3. 술,외박,가출도 내권리??









킬링 지저스 Killing Jesus

사망 이후 2천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 세계 22억 명 이상이 믿고 따르는 한 사람 예수의 일대기를 역사적 시각으로 다룬 TV영화 '킬링 지저스'는, 그 동안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예수의 기적, 신비, 부활이 아닌 그의 인간적 면모 및 삶과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에 주목했다. 당대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실제로 동지중해 지역 출신의 배우를 대거 캐스팅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글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영화는 예수를 역사 속 인물로 바라보며, 예수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정황을 통해 당대의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예수의 삶과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세력인 '예수와 그 추종자',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 '로마 권력자'가 예수를 각각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로마를 향한 위협'이라고 받아들인, 서로 다른 세 가지 시선을 통해 오늘날 예수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상은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에서 지난 3월 29일 방영을 앞두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기사를 미처 대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심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아직 자막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당시 방송 때 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감상이 힘든 실정이라 매우 유감스럽다. (아직까지 재방송이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킬링 지저스〉는 예수가 태어났던 시대,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던 시절로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진다. 헤롯 왕은 언제나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놓칠까 불안해했고, 동방박사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보러 갔다는 소식은 헤롯 왕의 불안감을 자극해 베들레헴의 2살 미만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어린 예수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탈출한 뒤였다. 26년 후, 예수는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고, 신실한 신자(信者)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동시에,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떠오른 헤롯 왕의 아들 안티파스와 로마가 임명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우려한다. 유대교의 리더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의 가르침과 방법에 의심을 품는다.

그의 영향력을 걱정한 세력과 그의 제자 중 한 명의 배신이 빚은 어두운 음모와 결탁으로, 예수는 결국 체포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그는 인근 무덤에 묻혔고, 며칠 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을 때,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날 까지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 Daum 영화소개

특이한 점은 〈프로메테우스〉, 〈엑소더스〉 등 매우 뉴에이지적이고 프리메이슨적인 작품으로 지난 〈엑소더스〉 소개 때 신랄하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총괄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영화를 관람하고 난 뒤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어로 감상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일단 소개는 해 두되 좀 더 분별 있는 시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요망한다. 단순히 인문학이나 역사적 이해의 범주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지성의 한계와 위험성도 고려하면서 말이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절대존재임을 잠시도 잊지말아야 하는 것이다.







빈대떡과 어리굴젓비빔밥

취재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어쩌다 저녁 회식자리라도 있으면 불판에 굽는 음식이나 냄비에 담긴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고 삶은 요리인 족발을 자주 먹는다. 그래서인지 요즘 족발로 인해 친해진 맛있는 어리굴젓을 먹으면서 이 어리굴젓을 좀 더 색다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 음식점(종로빈대떡) 앞 골목에 내건 '점심특선 어리굴젓비빔밥' 이란 플래카드 문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들렸다. 서산에서 직접 공수한 어리굴젓과 웰빙 식품인 새싹채소로 어울려진 어리굴젓비빔밥은 이런 식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하는 내 식탐에 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었다. 하지만 너무 맛있다 보니 돈가스처럼 자주 먹지는 못하겠지만 못 먹어 본 분들에겐 강추한다.

종로빈대떡

☎ 예약전화 : (033)264.9286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 순환로 72번길 33-14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66-1)
· 영업시간 :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브레이크타임 오후3시~5시30분)
· 메뉴 : 점심특선-어리굴젓비빔밥 8,000원, 빈대떡(야채,고기,해물) 각 1장 8,000원 2장 15,000원
파전(해물,굴,고기,모듬) 각 12,000원 외 국물요리와 식사가 있음
(원산지: 돼지고기, 배추, 닭 전부 국내산)

이렇게 가끔씩 낮에만 들리다보니 이곳 주메뉴인 빈대떡을 먹고 싶은 식탐 호기심이 또 발동! 그것도 '종로빈대떡'이란 이름을 내걸고 장사를 하니 다른 빈대떡집과는 뭔가 차원이 다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녁에 비가 추적 주적 내리는 날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들과 꼭 함께 오리라 약속을 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비는 내리지 않고.....

비 내리는 날엔 왜 빈대떡 같은 부침개를 먹어야 되고 왜 생선회는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돈이 없으면 집에 가서 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는 건지 파전이나 계란말이는 왜 안 되는지? 하여간 필자가 빈대떡을 먹는 경우는 업무차 서울 종로에서 늦은 밤 시간에 배가 출출 할 때 먹어보거나(장충동이면 족발을 먹었을게다) 아니면 이곳에서는 평양물냉면이나 메밀막국수를 먹을 때 반찬가짓수가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주문해서 면발에 돌돌 말아먹는 음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의 하나인 빈대떡은 녹두를 6시간 물에 불려 멧돌에 갈아 솥뚜껑에 부친 것으로 황해도에선 막부치, 평안도에선 녹두지짐이라 하고 이남에서는 빈대떡이라 불리운다. 밀가루로 하는 부침개(파전, 김치전,부추전)와는 달리 녹두로 만든 것이기에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식에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으레 빈대떡집이라 함은 식사가 아닌 2차로 가는 곳 즉, 술과 곁들어 먹는 왁자지껄한 곳이라 생각되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애매하고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벧전1:1)라 교회생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질 유일한 영성의 마당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온 세상 구석구석이 사역지라 생각해야 한다.

드디어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 약속한 대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그곳을 들려 빈대떡과 형형색색의 모듬전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음식을 흑주(콜라)와 백주(사이다)를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다.

옛 육림극장에서 중앙시장으로 올라가는 언덕 위 주변을 전주의 삼천동처럼 큰 규모의 막걸리 촌으로 만든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찌보면 그 곳 또한 서민들의 세상 속 시름을 푸는 장소라 술 문화로 흥청 될 수 있지만 그 곳 또한 복음을 알 릴 수 있는, 의사소통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또 다른 선교지라 필자는 생각한다.

요즘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 모두의 마음속이 타들어간다. 은혜의 단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 종로빈대떡 음식점도 장사가 잘 되어 사장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십일조와 감사헌금도 많이 봉헌하는 은혜로운 사업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춘천은혜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1-5652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일시 : 월~금,(주5회) 오후 17:30~19:30 · 장소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활동,
문화활동(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등) ☎254-7244 (내선3번 -심효선 사회복지사)

① 장경동목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전도축제

· 일시 : 7월 21일(화)밤~7월 23일(목)밤까지 (낮 11시, 밤 7시30분)

· 장소 : 오순절교회 기도원(북산면 추곡리) 김지훈목사 ☎ 033-243-5993/010-8263-0190

② 예수전도단 특별 화요모임 "승리하는 제자의 삶"

· 일시 : 2015년 6월 9일(화)~ 8월11일(화), 매주화요일 7시~9시30분

· 장소 : 동부장로교회 2층 중등부 예배실

· 강의내용 : 예배, 회복의 아버지, 묵상, 재정, 제자도, 중보기도&영적전쟁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 033-252-1128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10-9219-7738 (김주현)₩

· 강의 세부내용

#1 하나님과 나

- 예배 (6월 9일) : 공인현선교사(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 father's 앨범제작)
- 회복의 아버지 (6월 16일) : 김준환 간사(예수전도단 춘천지부장, 치유강사)
- 묵상 (6월 23, 30일) : 김수철 목사(제자들교회 담임, DTS묵상강사)

#2 세상과 나

- 재정 (7월 7, 14일) : 우성환 목사(좋은나무교회 담임, DTS재정강사)
- 제자도 (7월 21, 28일) : 오실환 간사(예수전도단 국제대학사역 간사)
- 중보기도&영적전쟁 (8월 4, 11일) : 정재용목사(높은뜻푸른교회)

6월 이야기

예수전도단 특별화요모임



예수전도단 춘천지부에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이란 주제로 9일부터 8월11일까지 (10주간) 특별화요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7시 동부장로교회 2층 중등부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금번 10주간은 특별화요모임으로 예배와 말씀을 통한 성경적 제자의 삶을 살기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나"이며, 9일 – 예배/공인현선교사(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 father's 앨범제작), 16일 – 회복의 아버지/김준환간사(예수전도단 춘천지부장, 치유강사), 23일, 30일 – 묵상/김수철목사(제자들교회 담임, DTS묵상강사)이며, 두 번째 주제는 "세상과 나"로, 7일,14일 – 재정/우성환 목사(좋은나무교회 담임, DTS재정강사), 21일,28일 – 제자도/오실환간사(예수전도단 국제대학사역 간사), 4일,11일 – 중보기도&영적전쟁/정재용목사(높은뜻푸른교회)로 진행된다.

김주현기자

통일광장 기도회



6월29일(월) 저녁8시 석사교하천무대에서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있었다. 이 날에는 김종익목사(광명장로교회, 춘천교역자연합회장)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롬8:28)"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고, 거룩한 대한민국 회복과 북한 구원, 통일한국, 춘천성시화와 국가 지도자,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JDM 단기선교사 파송예식



11일(목) JDM(윤태호목사) 춘천지구에서는 단기선교사 파송예식을 가졌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비전에 따라 충성스러운 두 명의 자매를 각각 말레이시아 K시와 프랑스 리옹으로 파송하였다. 1년간 섬기고 돌아오는 두 단기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승수기자

6월 성시본부 조찬이사회



12일(금) 오전7시에는 예광교회(조영춘목사)에서 성시본부 조찬이사회(김창환대표회장)가 있었다. 6월26일 금요일 저녁7시부터 새벽1시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리는 블레싱춘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성시본부 조찬이사회는 춘천의 모든 교회, 성도, 기관, 기업 모두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성시화운동 전략모임이다.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성경학교



13일 토요일 오전 10시-4시30분까지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진행되었다. 메르스가 극성이었지만 25개 교회 150명의 교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참석하여 은혜시간을 나누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더바이블 넘버원"인데, 성경학교에서 성경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등 자세히 알아보는 주제이다. 말씀의 홍수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한다.

김마태기자

홀리클럽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홀리클럽 창립 19주년 기념예배가 28일(주일) 저녁7시30분에 석사감리교회에서 있었다. 홀리클럽 회장이신 황병호장로(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수석부회장이신 임운식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 석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찬양과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송원근 목사님(용인 자연빛 교회)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송원근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통일한반도의 비전은 통일영성을 가져야 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어려움들을 넘고 넘어갈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때, 이 민족의 아픔을 아는 어른 세대가 통일 한반도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말씀 선포후 부회장이신 김종열장로(신성감리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 사무국장이신 석광훈장로(석사감리교회)의 광고와 손학균목사(석사감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42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15일(월) 저녁7시 42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이날에도 복음적 평화통일은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80여분 모였다. 강사는 새터민으로 최초 최연소 박사이며 주승현박사(명지대교수), 주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대학생들에게 통일을 원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80명중 5명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 통일이 남을 위한 것인가? 북을 위한 것인가? 현재 북한상황도 좋지 않고, 남한 상황도 좋지 않다. 남한은 섬과 같은 지형에 살고 있고,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없으나 한반도 97%의 지하자원이 북한에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조에 달한다고 한다. 또 남한은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커버해야할 내수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 합치면 8,000만의 내수시장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남한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북한

춘천 GBT 연합예배



6월28일(주일) 춘천우리교회에서 GBT와 동역하는 이사교회들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다. 본부 동원훈련부의 안드레선교사의 말씀선포와 찬양의 고백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김주미 기자

GBT 예담교회 청대부 선교학교 진행



6월27일(토) GBT에서는 예담교회의 청대부와 함께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선교의 주간으로 드려지는데, 5월부터 GBT와의 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교이야기"를 매 강의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강의를 듣는다.

김주미 기자

에는 2,400만의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탈북자들의 90%가 정착에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데, 탈북자들을 노리는 곳은 북한, 또 이단이라고 한다.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 땅에 들어오게 하였는데, 교회가 이들을 잘 품어내서, 탈북자 가족을 통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박사는 한반도가 기로에 서있는 이때에 교회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를 반공으로 지킨 이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분단을 해소할 가치인 사랑, 용서, 화해, 관용등 기독교적 가치를 전 사회에 보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 말씀을 마치고 이병철목사(주향교회, 쥬빌리춘천모임 대표)의 기도인도로 우리는 남북이 함께 살 골든타임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무관심 하지 말고 무력해져서도 안된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또 잘 품어가도록,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쳤다. 다음 43차 모임은 7월 13일(월) 저녁7시에 있는데 강사는 서훈교수(이화여대 교수, 전 국정원차장)입니다.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주최 1일 부흥성회



21일(주일) 저녁 7시30분 동부교회에서는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주최 1일 부흥성회가 있었다. 교경협의회 부회장이신 박재영목사(소망성결교회)의 사회와 증경회장 정명훈목사(예강장로교회)의 대표기도, 협동총무이신 윤정호목사(순복음생명샘교회)의 성경봉독, 동부장로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교경협의회 회장이신 김혜영목사(중앙장로교회)의 인사말씀과 춘천경찰서장 박문호총경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설교에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디아코니아 상임이사이신 홍주민목사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교경협의회 총무이신 김원중목사(우리장로교회)의 광고후 경찰가족들, 춘천시 복음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경협 부회장 김한호목사(동부장로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강원학교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이태희변호사 강의



19일(금) 오전 10시30분 중앙감리교회에서는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강원학교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이태희목사(국제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영적전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이란 개념에 교묘하게 다름과 틀림을 섞어 놓았는데, 올바른 분별이 필요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흐름들을 막아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GBT "선교를 돕는 재능기부" 두번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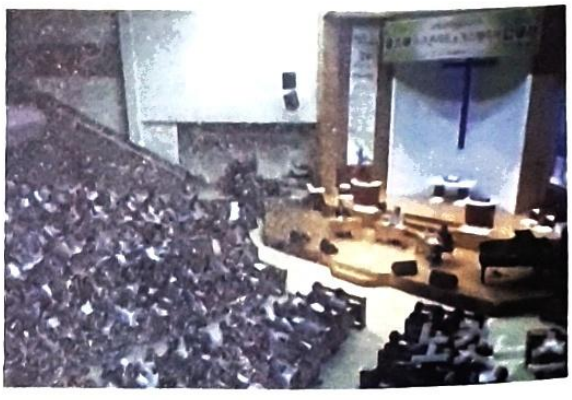


6월26일(금) GBT에서는 "선교를 돕는 재능기부" 두 번째 모임을 예담교회에서 가졌다. 현지에서의 선교를 돕고 싶은 지체들이 모여 모임을 가졌는데, 1차 모임에는 어린이를 위한 헤어악세사리를 2차 모임에서는 싹스돌을 그리고 3차 모임에서는 가방걸이와 매듭팔찌를 배워보고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질 예정이다. 현지 선교사를 돕는 국내 선교사들의 모임으로 계속 이어지길 소망해본다.

김주미 기자

강원CBS 창립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및 찬양콘서트

24일(목) 저녁7시 성광장로교회에서 열린 강원CBS 창립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가스펠축제'가 있었다. 강원CBS 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에 이어 진행된 1부 토크콘서트에는 김기석(청파교회)와 신우인(포이에마예수교회), 변순복(백석대 교수)가 "당신의 신앙 시계는 몇시입니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석 목사 등은 한국 교회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기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눈을 뜨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2부 가스펠 찬양축제에는 유은성, 신현진, 장혁재 가스펠 사역자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진행했다.



F. 쇼팽 (FREDERIC CHOPIN : 1810-1849)의 전주곡 작품 28 중 15번: 〈PRELUDE OP.28 NO.15 〉 빗방울 전주곡

오랜 가뭄 끝에 마침내 긴 장마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타들어갔던 농작물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도 애태웠던 농부의 심정으로 시원한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 메르스의 공격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여전히 기세를 부리는 통에 우울한 마음들이 전역에 퍼져있어 가뭄과 함께 기도제목이었는데 그나마 해갈의 빗소식이 울려 퍼졌음 좋겠습니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평생을 피아노 곡에 매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폴랜드의 볼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랜드 어머니를 둔 그는 이미 네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12살 때 바르샤바 음악원에 입학합니다. 유럽을 순회하면서 이름을 알린 그를 극찬한 슈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파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당대의 유명한 리스트로부터 인정을 받고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26세에 리스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류 소설가 죠르쥬 상드 (G. SAND)와의 러브스토리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그와 함께 에스파냐의 마요르카 섬에서 요양하며 더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거기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돌보면서 피아노와 작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바흐의 유명한 〈전주곡과 푸가〉 처럼 24개의 모든 음조에 걸쳐서 기하학적인 구조로 작곡했지만, 그는 C장조로 시작하면서 관계조인 A단조로 조성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15번 D프랫장조는 〈빗방울〉 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음(Ab, G#) 때문에 빗방울이라는 제목이 붙을 정도로 연이어 떨어지는 빗줄기처럼 비오는 날의 풍경을 떠오르게 만드는 곡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보다도 손열음 자매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건기의 끝자락에 양철지붕 위를 때리는 강한 빗소리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창 밖을 한동안 바라보며 상쾌함을 느꼈던 고산의 우기철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그리고 비발디의 〈빗방울〉을 셀틱 워먼(CELTIC WOMAN)의 꼴로에의 목소리로도 들어보면 색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비를 기다리며 옛 정취의 비에 대한 노래를 찾아 듣게 되었네요. 이제 여름 방학과 함께 각종 행사들이 시작될텐데요 모쪼록 메르스가 속히 진정되고 신나는 물놀이와 휴가철에 찌든 곰팡이 같은 우울함을 한방에 날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천리에서 다니의 음악과 함께, 빗줄기 속에서 보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글 김금찬 선교사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경아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춘희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완영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준선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옥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주희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은희 장창순 전옥희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영순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예은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하명수 한건영 한명수 한정연 한희선 함종현 허 붕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아가갤러리 성시무용단 춘천YWCA 월드비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2015 쥬빌리청소년 여름캠프

통일 걱정 없다

드루와!

7.27(월) - 30(목)

수안보 드림리조트

www.jubileeuni.com/jjcamp





오프닝공연 춤추는 예배자 PK



찬양집회 그레이스 노트

* 탈북 청소년들은 특별한 혜택으로 초대합니다. 문의해 주세요.

강사진

김정윤 목사 (빛트인교회 담임)
마민호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송원근 목사 (평화나눔재단 공동대표)
이관우목사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 (PN4N 대표)
이병철 목사 (춘천 쥬빌리 대표)
윤성종 목사 (기독교 북한선교회, 통일교육강사)
김아라 자매 (탈북 연예인, 이만갑 출연)
이나영 강사 (통일교육강사, 북한학 전공)
배윤정 강사 (통일교육강사, 북한학 전공)

캠프 내용

- 주 제 : 주여, 칠십년이 찼나이다! (렘 29:10)
  부제 : " 통일 걱정없다, 드루와 (들어와) ! "
- 대 상 : 전국 기독 남북 청소년, 사역자 , 학부모
- 회 비 : 7만 5천원 (3박4일)
- 입금계좌 : 신협 131-017-768868
  이병철 (청소년쥬빌리)
- 문 의 : 백형열 목사 (010-4458-0100)
  드림리조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번지
  TEL : 043-857-7100~1)
- 주 최 :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주관 : 연합주니어쥬빌리